

《요람에서 요람으로》

## 책을 ‘재활용’ 하는 제법 유서 깊은 방법에 관하여

어디서 읽었더라?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취미 가운데 하나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두고 그 안에 느긋하게 누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옛날 잡지 가운데 한 권을 읽는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욕조에 누워서 목욕하며 책을 읽다니, 물론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책을 좋아하는, 그리고 책의 보관방법이나 상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 쓰는 사람으로서 내가 한 가지 이상하게 여기는 (그리고 약간은 몸서리치는) 점이 있다면, 종이는 모두들 알다시피 물이나 습기에 치명적으로 약한 물건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욕조에서까지 굳이 그토록 독서열을 불태울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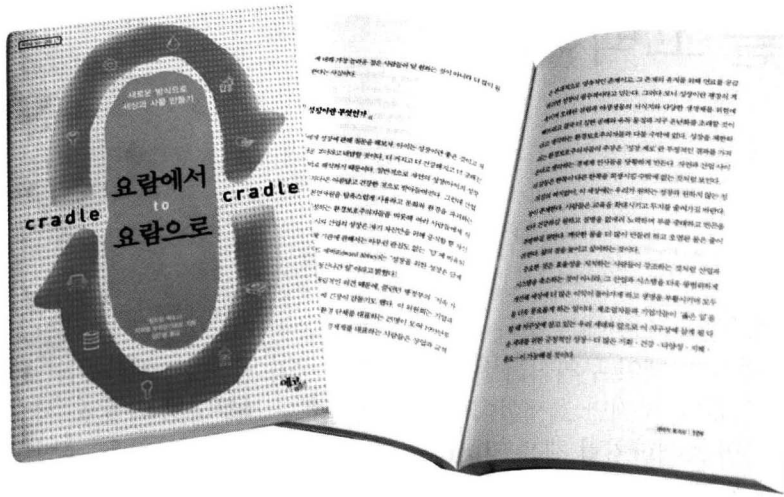
글\_박중서

비슷한 이유로 나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책을 읽는 것에도 반대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욕실이나 화장실은 워낙 습기가 많은 곳이므로, 그런 곳에 책을 두면 얼마 못 가서 습기를 먹어 변형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나 역시 쓰라린 기억이 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책을 빌려가 놓고 소식이 없다가 몇 달 만에야 돌려주었는데, 마분지로 된 표지는 물에 젖어 얼룩이 지고, 책도 습기를 먹어 찌글찌글해진 걸 보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더니, “화장실 변기 위에 올려두고 읽었더니 그렇게 되었다”며 태연스럽게 대답하기에 그야말로 질린 적이 있었다(이후 그사람에게는 절대로 책을 빌려주지 않는다).

### 플라스틱으로 만든 책이 있다고?

그렇다면 습기나 물에 젖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욕실이나 화장실에서도 읽을 만한 책은 뭐 없을까? 내가 알기로 하나 있긴 있다. 이 책으로 말하자면 습기는 물론이고 물에도 끄떡없다. 아니, 아예 물에 젖지 않는 물건이니, 욕조에 앉아서 읽어도 그만이고 물속에 머리를 박고 읽어도 문제없다. 혹시 갓난쟁이들이 읽는 ‘형짚 책’ 아니냐고 의심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래봐도 신국판에 262쪽이나 되는 어엿한 단행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바로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맥도너와 미하엘 브라운가르트가 공저한 《요람에서 요람으로》가 바로 그 특별한 책이다. 2003년 3월 17일에 나온 이 책의 초판 1쇄본 뒤표지에는 이런 설명이 적혀 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지 않겠습니다. 이 책은 환경보호용 인조종이 백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재활용품 마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설명도 적혀 있다. “이 책은 플라스틱 합성지로 인쇄하였습니다. 폐기시 재활용할 제품이니 플라스틱 류로 분류하여 주십시오.”



**《요람에서 요람으로》**

윌리엄 맥도너 · 미하엘 브라운가르트 지음 | 김은령 옮김 | 예코리브르  
262쪽 | 값 15,000원

표지가 보이는 왼쪽의 책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초판 1쇄본이고 내지가 보이는 오른쪽 책은 일반용지로 만든 초판 2쇄본이다.

무슨 뜻인가 싶어 책을 펼쳐보면, 실제로 종이 자체가 뭔가 평소에도 보던 것과는 다르다. 어딘가 새하얗고 매끄러운 것이, 겉모습은 종이지만 촉감은 마치 얇은 플라스틱 필름 같다. 이 책 제3장에 나온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책은 기존의 두 가지 단행본(일반용지에 코팅표지를 한 '흔히 보이는 책' 과, 재생용지에 무코팅표지를 한 '환경을 생각하는 책')의 장단점을 흡수, 보완한 세 번째의 책으로 실용성은 물론이고 환경까지 생각한 책이라고 한다. 즉 이 책은 무한히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었으며, 책을 제본할 때 사용한 접착제나, 본문을 인쇄한 잉크를 화학 처리 등으로 씻어내면 완벽하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이 책의 특이한 외관은 저자들이 지닌 생각, 즉 완벽한 재활용이 가능하면서도 훌륭한 디자인을 지닌 “체대로 된 상품을 만들자”는 생각이 현실로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차라리 조금씩만 만들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책은 물속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일까? 저자들이 그렇다고 하고, 이 책의 번역자 역시 정말인가 싶었는지 원서를 가지고 욕조에서 시험해 보았는데 진짜라고 하니, 정말로 여길 도리밖에는 없었다. 아, 물론 나는 아직까지 직접 실험해 보지는 않았다. 물에 안 젖는 것은 둘째 치고, 결국 물이 문을 경우에는 다른 습기에 노출된 얇은 비닐처럼 서로 착착 달라붙어 있을 텐데, 그걸 나중에 일일이 펼쳐서 닦거나

말릴 생각을 하니 귀찮아서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책의 초판 1쇄본 간행 후 6개월 만인 9월 29일에 나온 초판 2쇄본은 종이의 재질이 먼저와는 전혀 다르다. 즉 표지를 제외한 본문은 인조가 아니라 일반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다. 뒤표지의 설명도 먼저와는 달리 “이 책의 표지”만 인조종이로 만들었다고만 나온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이 만만찮은 플라스틱 합성지로 만들다 보니 제작비 부담이 컸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고 친다면, 이 책의 제작 방식이 보편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거나, 또는 조만간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만 같다.

그리고 보니, 문득 이런 생각도 든다. 진짜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차라리 책을 조금씩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까?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책 한 권을 내는 것이 (비용이나 노력 면에서) 비교적 쉬워진 까닭일까, 책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만 같다. 물론 선택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는 반갑지만, 가끔은 과연 이런 왜 나왔을까 싶은, 아무런 개성이나 매력이나 의의도 없어 보이는 책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미안한 말이지만, 최근의 이른바 ‘국내 저자가 쓴 대중용 교양서’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물론 엉터리 번역서야 굳이 말할 것도 없고.)

**유서 깊은 재활용법, 헌책**

누군가는 “책이야말로 문화 쓰레기”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가끔은 정말 ‘꼭 나와야 할 책’ 만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왕창 만들고 왕창 버리는 추세에서 재활용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잘’ 만들어서 ‘안 버리고’ 계속 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말해놓고 보니 비현실적인 주장 같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이거다.)

아,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책의 ‘재활용’은 저자나 출판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뭐냐면, 저자와 출판사의 당부대로라면 이 책을 버린 사람들은 마땅히 ‘플라스틱’으로 분류해 버려야 했겠지만, 일반 ‘종이 책’ 과 구분이 어려운 외관 때문인지 결국에는 ‘헌책’으로 분류되어 헌책방에 나와 있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는 것이다. 물론 저자가 의도한 것처럼 일련의 화학 처리를 거쳐 새로운 책으로 재활용되는 것도 좋겠지만, 어쩌면 그냥 이 책 형태를 유지한 채로 계속 ‘헌책’으로 사람 손을 타는 것 역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그리고 제법 유서 깊은 ‘재활용’ 방법은 아닐까? **■**

박중서 님은 에이전시와 출판사 등 출판계에서 두루 활동했으며 지금은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역서로 《젠틀 매드니스》(공역)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등이 있다.